

# 건전한 의료공급자를 보호하는 '자율점검제도'가 2018년 1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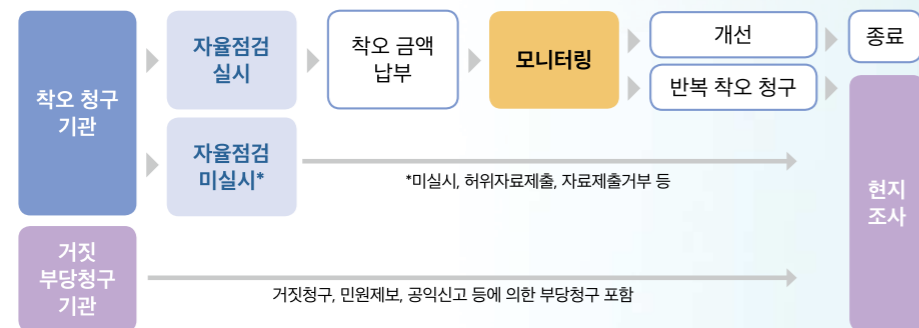
## 요양(의료)급여 자율점검제도는 무엇인가요?

- 착오 등 단순·반복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요양기관에 안내
- 요양기관이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내역을 자율적으로 점검
-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는 경우, 비용은 납부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올바른 청구문화 조성

## 혜택이 궁금해요!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징금·업무정지) 면제

## 자율점검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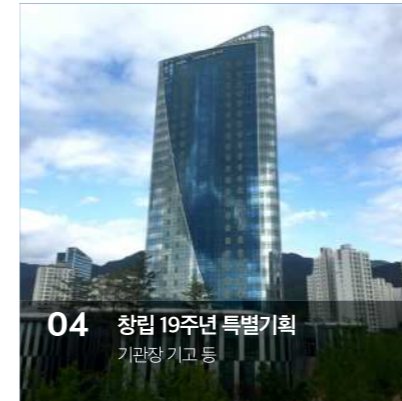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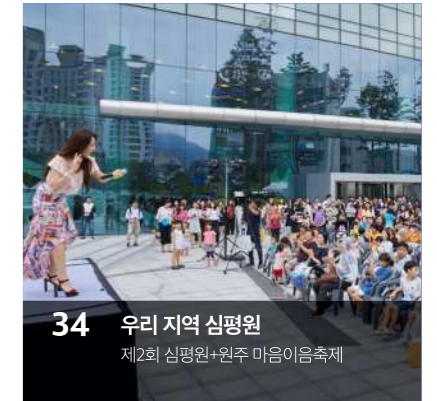
2019 July + August 07/08 Vol. 171



04 창립 19주년 특별기획  
기관장 기고 등



20 한눈에 보는 질병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질병, 간암



34 우리 지역 심평원  
제2회 심평원+원주 마음이음축제



38 내 삶의 활력  
야구 동호회 HIRA Angels,  
'함께 경기한 모두가 승자!'



40 건강한 동행  
2019년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46 그곳에 가면  
해슬길과 낙조가 어우러진  
대부도에서의 하루



50 마음 연구소  
2인자들의 극단적인 심리,  
살리에리 증후군



52 HIRA News  
김승택 원장, 머니투데이 방송 인터뷰 등



58 의약계 안내사항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실시  
(2019년도, 1차) 등

2019 07/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드는 건강정보 전문지 Vol. 171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 Contents

**19**th ANNIVERSARY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9주년 특별기획

- 04 기관장 기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 06 축하 메시지**  
독자들이 전하는 창립 19주년 축하 메시지
- 10 HIRA Photo Essay**  
사진으로 보는 심평생활
- 14 HIRA 책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숨은 작가의 책을 소개합니다
- 18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를 구축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

## 건강한 이야기

- 20 한눈에 보는 질병**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질병, 간암
- 24 질병 A to Z**  
간암,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 30 병원평가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안내

## 행복한 이야기

- 32 HIRA 톨아보기**  
비급여 진료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34 우리 지역 심평원**  
제2회 심평원+원주 마음이음축제
- 38 내 삶의 활력**  
야구 동호회 HIRA Angels, '함께 경기한 모두가 승자!'
- 40 건강한 동행**  
2019년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44 정책·이슈**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입원료 등 주요 변경사항
- 46 그곳에 가면**  
해솔길과 낙조가 어우러진 대부도에서의 하루
- 50 마음 연구소**  
2인자들의 극단적인 심리, 살리에리 증후군
- 52 HIRA News**  
김승택 원장, 머니투데이 방송 인터뷰 등
- 54 독자의 소리**  
대구시 달서구 이유민 님 등

## 유익한 이야기

- 의약계 안내사항**
- 58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실시(2019년도, 1차)**
- 60 영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2018년도, 7차)**
- 62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2017년도, 8차)**
- 65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정액 수가 현실화**
- 66 요양기관 업무포털 진료비 확인 업무 처리 방법**
- 68 산부인과 전문병원 제도**
- 70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hirasabo.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http://blog.naver.com/ok_hira)  
팟캐스트 <오케바다>: <http://www.podbbang.com/ch/9584>  
심평TV: <http://hiratv.or.kr>

\* 책자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e.

**간암** Liver C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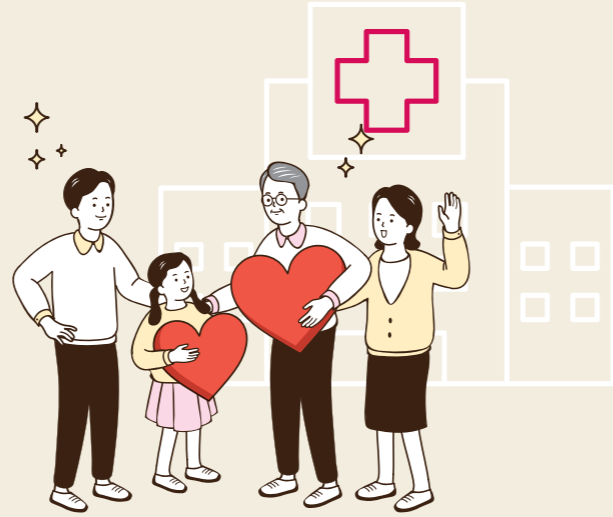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발행일\_ 2019년 7월 26일 통권\_ 제171호 발행처\_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_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_ 김승택 편집인\_ 김형호  
기획 디자인\_ 유니크플러스 인쇄\_ 세원문화사  
고객센터\_ 1644-2000 / 033-739-0324

#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얼핏 조용해 보이지만 병원의 일상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돌아간다.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병을 안고 병원을 찾는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의존한다. 한평생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의사로 보냈던 필자도 많은 환자, 그리고 가족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돌이켜보면 병을 이겨내고 병원 문을 나서는 환자들을 지켜봤을 때의 기쁨은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암환자를 치료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환자에 대한 미안함과 의사로서의 자괴감도 감출 수 없었다.

더 힘들었던 것은 돈이 없거나, 남은 가족에게 부담될까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였다. 병마와 지쳐가며 싸우는 것도 힘겨운데 병원비가 없어서 더한 고통을 안고 가야 하는 환자들의 체념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2년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마음을 다잡은 것 중 하나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건강보험체계에서 모든 국민에게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여 환자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적어진다면 이들 환자에게는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다. 특히 병에 걸리면 치료비 걱정이 앞서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점에서 시행 2년째를 맞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우리의 건강보험체계에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지금까지는 전체 의료비에서 국민이 37%정도를 내고 건강보험에서 63%내외를 부담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비율을 70%수준까지 높여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초음파 검사, MRI, 치매, 들니, 임플란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2~3일 입원료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등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됐다. 건강보험 확대에 따라 병원에서 새로운 비급여항목을 계속 만들어 수익을 내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점도 혁신적이다.

반가운 것의 하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불리는 이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가구에 막대한 부담이었던 의료비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줄어 의사시절 느꼈던 안타까움이 조금은 나아졌다.

최근 조사를 보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사안별로 70~80%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가에서 치매환자를 돌본다는 국가치매책임제의 만족도는 82.5%에 달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만족도도 높고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큰 축의 하나인 의료계의 반대가 일부에서 남아있다. 그간 의료계와의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 많은 부분의 오해를 불식시켜왔지만 아직도 더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수익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가 책정될 수 있게 정부당국과 함께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차근차근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사생활을 해오면서 저수가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인식하고 앞장서서 풀고자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업무인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의료인의 자율과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심사·평가업무를 의논해 나갈 것이다. 개별 행위가 아닌 질병치료의 합목적적인 부분을 크게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이웃 중에는 병원비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자들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환자의 고통을 줄여나가는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  
 2019년 6월

김승택





# 독자들이 전하는 창립 19주년 축하 메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창립 19주년을 맞았습니다.  
 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1일 설립 이래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 국민 여러분께 꾸준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아 많은 독자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님  
 (서울시 성동구)

아버지 거꾸러인 용으로 자는 모르는  
 비몽중, 아내노인들에게는 더욱 더 사랑  
 하겠지요. '건강을 가치는 사냥꾼'이  
 고연연에서 많은 기여를 하시리라 봅니다.  
 계속 좋은 비몽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인재 님  
 (강원 원주시)

HAPPY BIRTHDAY TO YOU  
 먼저 심사평가원 창립 19주년 발령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심사평가원이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감사하게 오랫동안 제 곁에  
 있어준 분배입니다.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어서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19주년을 넘어 100년 까지  
 성장하는 심사평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평가원)  
 19주년을 위하여  
 ~~~  
 Thanks  
 2019

노경표 님  
 (경남 창원시)

이런저런 행행 1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행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보의식  
 행행이 19년전의 행행으로 환자와 가족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일반 국민은 심사평가원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에 더욱더 가깝게 사랑받는 심사평가원이 되길  
 바랍니다.

김화영 님  
 (부산시 부산진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창립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강을 가치는 사냥꾼)을 통해서 알게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건강이 좋고, 그런 것보다  
 더해서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이해 사랑과 사랑받는 국민들의 건강사상이기 되어  
 주시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으로도 늘 국민을 위하여  
 (건강을 가치는 사냥꾼)을 통해 더 건강해주시길.  
 더욱 더 사랑받는 심사평가원을 위하여 응원하겠습니다.

전경숙 님  
 (광주시 북구)

심사평가원  
 창립 19주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만년지 지우 10년쯤 되는데 아직도  
 계속 애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구매했  
 주신  
 역시, 모르면 물어보고 싶은 것  
 감사입니다!!  
 알기 감사합니다!!

황석영 님  
 (부산시 금정구)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창립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선을 보면서 건강은 재산이고  
 정원은 힘이 되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가끔 어려운 용어도 나오지만, 의료나 의학 등  
 초능력 알파는 게이트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정명진 님  
 (서울시 강남구)

심사평가원 생일이 7월 1일 어르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어 든든해요~  
 제 건강에 있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강한 느낌이 들어요.  
 마음연극노에서 거북 목에 같이나. 범분안장애?  
 최명기 선생님이 나눠주신 귀한 말씀 덕분에  
 부아가 많이 줄어들어 다시금 안정을 찾아가습니다.



최홍식 님  
 (부산시 해운대구)

다시 봤어! 창립 19주년 어라  
 내내 77세(43년생) 58세 1대 내내 너무  
 건강하다고 고만하고 부자해서(건강적) 오늘  
 황혼기 외종숙이 사네로 19년전부터(58세)  
 건강을 아꾸는 사람들 접해더라면 라는 후회가 되네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건강해지면 멋진 아름다운 원두! 찾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하다고 찾아뵙겠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습니 God bless you! 여러분!

김은뜸 님  
 (충북 청주시)

창립 19주년 축하합니다.  
 사반을 통해서 보내서 김이노 암을 앓아  
 갑니다. "이런 곳도 있구나!"  
 김이노.  
 정말 암을 앓고  
 김이노 김이노  
 김이노 암을 앓고  
 다시 김이노 김이노  
 창립 19주년 축하합니다.

조옥임 님  
 (광주시 북구)

전 소아과에서 원무과에 일하는 행정직원입니다.  
 작은 다과다들니 정수나 청구같은 약에  
 이번엔 청구 이외의신형 접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별 잘 모르는 업무인데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딱히 가르쳐주는 이도 없습니다. 심사평가원  
 이외의신형 담당자님께 전화로 물어본건 잘 알려  
 주시길 하지만, 사별 잘 맞았어요.^^  
 이외의신형 재선에 관한 부분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김승미 님  
 (전북 익산시)

심평원 창립 19주년은 축하드립니다. ☺  
 는 국민의 의료적 결을 눈앞에 한몫 들으니 하는  
 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19배 행복합니다.  
 더불어 19주년은 맞이하여 심평원의 19인의 임무는  
 순서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의료진이나 경험당. 에디스드들은  
 들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병건 님  
 (광주시 광산구)

"심평원 창립 19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처럼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부탁  
 드리고, 처자치 관리 정책의 확대의 사회적 경제적 의료보험이  
 행복을 나눌수 있기, 부당사유에 안기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정말 잘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구급관련 직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더욱 명쾌하게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강태기만큼 사랑 받으며 건강하게 오래 건강을 누리 주시길 더욱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진 타미!!!

이영현 님  
 (경북 청도군)

저의 의료기관에 정산 지 약 5년이 다되어갑니다.  
 암을(특히 암보험) 관련해서 정산, 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평원 대표 전화 상담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 관할 자원이 대구권 심사평가부  
 선생님들(특히 양향선, 이대희 과장님(비명 귀찮게 되네요!))께 정원으로 감사합니다.  
 각 분야의 담당자님에게 정직한 답변을 주셔서 저도 지금까지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었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과 심평원의 win-win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좋겠어요.  
 화이팅! ♥ ♥ ♥

김건완 님  
 (경기 시흥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0년 설립된 이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문화를 열어가기 위해 힘써온 심평원의 노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9년  
 동안의 빛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4반세기, 반세기, 새로운  
 100년을 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으로 보는 심평생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9주년을 맞아 사옥, 근무 모습, 워크숍 등  
 우리원과 관계된 일상 및 풍경을 임직원이 촬영했다.  
 임직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심평원의 이모저모!



#국민과 함께  
 #대내외 행사

#반짝반짝 우리원  
 #사옥 #우리 일터

김상미 대리(급여조사실 자율점검부) :



♡ Q →

♡ #우리원 사옥 #퇴근할 땐 무엇이든 아름다워  
 비 내린 뒤 화창한 오후 퇴근길. 하늘과 어우러진 사옥이 무척 아름다워 촬영했습니다.  
 • 촬영일: 2019년 6월 10일

권수미 과장(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 Q →

♡ #제2사옥 탄생 #애사심 최고 #기록  
 심평원 제2사옥의 탄생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꾸준히 지켜보며, 완공 후 원주로 올 서울사무소의 동료들과 틈틈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과 인내의 시간을 들여 만든 제 작품입니다.  
 • 촬영일: 2017년 11월~2019년 6월

조준모 대리(고객홍보실 홍보부) :



♡ Q →

♡ #신사옥 건립공사 #현장 소장의 시선  
 심평원에 입사하고, 신사옥을 짓고 있는 원주가 궁금해 동료와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닐 회사가 잘 지어지는 것을 보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찍은 사진이 생각나 응모합니다.  
 • 촬영일: 2014년 10월

장혜선 과장(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 Q →

♡ #국정 감사 #전등이 꺼지지 않는 심평원  
 2018년 국정 감사 기간에 질의 대비를 위해 야근 중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국회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완벽한 방어를 위해 이렇게 환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  
 • 촬영일: 2018년 10월 18일

서다정 과장(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부) :



♡ Q →

♡ #아이들과 함께 소방훈련 #꼬마 소방관  
 수원지원에서 아이들과 소방훈련 실시! 소방관과 아이들이 직접 불을 끄고 있어요~  
 • 촬영일: 2015년 9월

박진경 주임(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



♡ Q →

♡ #신규 직원 #실무 부서로 배치받은 날  
 수탁사업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신규 직원(박경아 주임)이 2주간의 신규 교육을 마친 후 실무부서로 배치받은 날, 부-차장님과 첫 면담을 갖는 장면입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모습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 촬영일: 2019년 6월 20일

강경우 대리(서울지원 고객지원부) :



♡ Q →

♡ #배식 봉사 #마음도 함께 담다 #맛있게 드세요  
 은평구 누리사랑 복지센터에서 서울지원 무료 배식 봉사 중  
 • 촬영일: 2018년 9월 19일

윤혜인 대리(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 :



♡ Q →

♡ #국회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국회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열심히 분임과제를 수행하는 심평원의 모습입니다.  
 • 촬영일: 2019년 5월 20일

#누가 봐도 동료  
#일상 #기념

조예솔 주임(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



♡ 👍 ➡  
♥ #키순으로 모여~ #다음에는 어떤 포즈를?  
14직번 동기들끼리 매년 입사 N 주년마다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벌써 다섯 장이나 됐네요. ^^  
• 촬영일: 2015년 2월 ~ 2019년 2월

김현국 대리(인재경영실 인재개발부) :



♡ 👍 ➡  
♥ #제40회 근로자가야제 #최종 예선 참가  
심평원 직원으로 이루어진 연주자 동호회에서 매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근로복지공단과 KBS한국방송이 개최하는 근로자 문화예술제의 가요 부문에 참가해 수많은 난관과 경쟁자를 이겨내고 본선 녹화 방송 직전인 최종 예선까지 진출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 촬영일: 2019년 3월 31일

김수민 대리(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 👍 ➡  
♥ #5분 늦게 나가면 15분 늦게 먹는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다급함이 보이는 슬리퍼의 위치. '출근'을 건디는 희망 '점심'  
• 촬영일: 2019년 3월 27일

이은정 대리(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 :



♡ 👍 ➡  
♥ #나도 HIRA 패셔니스타 #여기가 런웨이  
근무복 수령 후 팀블러를 들고 기분 좋은 모습을 한 것 같습니다. HIRA인임을 자랑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 촬영일: 2019년 1월 25일

황연주 과장(의정부지원 고객지원부) :



♡ 👍 ➡  
♥ #태백산 #드디어 정상. 만세! #동료애를 짝짝~  
2019년 3월 8일 23시 청량리역에서 태백역으로 이동해 이튿날 4시에 태백산을 등반했습니다. 철쭉 같은 어둠과 녹지 않은 눈으로 힘든 등반이었지만 서로를 돕고 다독이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소중한 마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촬영일: 2019년 3월 9일

윤지혜 과장(평가운영실 평가정보팀) :



♡ 👍 ➡  
♥ #울끈볼끈 꽃게 #워크숍  
오전 11시경 제천 리솜포레스트 야외 테라스에서 워크숍 일정에 있던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팀전으로 진행 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 촬영일: 2019년 6월 18일

정다혜 주임(혁신연구센터 상대가치개발부) :



♡ 👍 ➡  
♥ #워크숍 끝~ #뛰어보자 골짜기  
상대가치개발부 워크숍 활동 종료 후, 활기찬 기념 단체 사진입니다. 상대가치개발부 발전을 위하여, 겹피!  
• 촬영일: 2019년 6월 19일

손미경 대리(기획조정실 법규송무부) :



♡ 👍 ➡  
♥ #법규송무부 탁구대회 #이기는 팀 우리 팀  
우리부 직원끼리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경기 방식은 남녀 복식, 5선 3승제! 같이 운동하며 업무 스트레스도 날리고, 경기 후엔 진 팀이 시원한 맥주를 샀습니다.  
• 촬영일: 2019년 5월

김민지 대리(빅데이터실 빅데이터지원부) :



♡ 👍 ➡  
♥ #우비 소녀 소년 #청일점  
2018년 실 워크숍으로 구룡사에 갔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지만 다 같이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  
• 촬영일: 2018년 7월 12일

고정연 과장(급여보장실 예비급여평가부) :



♡ 👍 ➡  
♥ #수가개발실 워크숍 #음료는 촬영 소품  
충북 제천의 호수에서 즐거워하는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 촬영일: 2017년 11월

#워크숍  
#열심히 즐기고  
더 열심히 일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숨은 작가의 책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9주년을 맞아  
 우리원에 재직하는 숨은 작가를 찾았다.  
 시, 소설, 에세이 등 심평인 작가가 집필한  
 다양한 책을 동료의 추천을 받아 소개하고  
 아울러 추천하는 이유도 함께 담았다.



### 젓가락이 손가락에게



저자 | 신진호 차장(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펴냄 | 북나비 출간 | 2019.2.7.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 주변 환경, 사물들로부터 의미를 발견해 정성스럽  
 게 써내려간 시로 가득 채운 시집이다. 어려운 시적 표현  
 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표현 대부분이 직관적이므로 시를 읽음과 동시에 머  
 릿속에서 상황과 풍경이 그려진다.  
 주제를 사람, 자연, 가족, 직장, 국가, 사회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얼핏 보면 동시 같은 느낌도 주는 성  
 인 시집이다.

#### 추천 평

읽다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일상에 지친 사람들  
 에게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또 평소 시를 접하지 못한 사  
 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책의 디자인이 심플하면서  
 도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호 인턴(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 직장생활 레시피



저자 | 황대능 부장(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  
 펴냄 | 좋은땅 출간 | 2018.9.21.

<직장생활 레시피>는 저자가 언젠가 조직 생활을 하게  
 될 두 아들과 사회 초년생 및 직장 후배들과 경험을 공  
 유하고자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은 회사 생활을 하며 누구  
 나 한 번쯤 고민할 인간관계, 소통과 설득의 노하우, 글  
 쓰기와 보고 기술까지 조직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놓고 있다. 20년이 넘는 회사 생활을 기반으로 소개하는  
 <직장생활 레시피>로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해보는 건  
 어떨까.

#### 추천 평

현재 인턴인 제게, 20년이 넘는 회사 경력을 지닌 부장님  
 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부장님도 가  
 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가장이라는 사실을 깨  
 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아버지처럼요. 회사 생활과 인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리더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닌, 그냥 허심탄회하게 '아빠는 그  
 랐단다'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취직에만 매달려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제가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  
 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회사 생활을 하며 인생의 방향성  
 을 잃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솔 인턴(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



### 내 멋대로 유럽 생활



저자 | 김주연 과장(대전지원 심사평가2부)  
 펴냄 | 생각의빛 출간 | 2019.4.29.

저자는 1년 동안 스위스에서 한적한 생활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과 함  
 께한 유럽 여행을 통해 생긴 에피소드를 풀어내면서 인생  
 의 깨달음을 담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워킹맘의 어디서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담하게 적은 책이다. 20대  
 부터 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했으며, 지금도 노력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추천 평

가끔 자기 삶에 대한 방향성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게 일독을 권합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작가  
 의 모습에서 새로운 용기와 도전정신을 경험해보길 바랍  
 니다.

황희숙 과장(대전지원 심사평가2부)

꿈이 없이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강렬한 메  
 시지, 꿈을 향해 나아가라.

박정의 차장(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 영어, 한국어 언어 전쟁

저자 | 천병석 과장(대구지원 고객센터) | 출판 | 북랩 | 2019.4.30.

이 책은 영어와 한국어가 기원적으로 동일한 언어임을 간단한 <G법칙>으로 증명하고, 그 사례 단어 800여 개를 제시한다. 특히 G법칙 원리를 적용해 한국어와 영어가 유사한 언어임을 보인 사례 130여 개 단어는 작가의 어린 시절 추억담을 곁들여 수필로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친근하게 언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 추천 평

우리 문화나 역사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와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모든 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말이 세계 최대 사용 언어인 영어와 근원적으로 완전히 동일함을 밝힘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책입니다.

신유현 대리(고객홍보실 홍보부)



### 풍요로운 삶의 비결

저자 | 염동휴 과장(심사실 내과심사1부) | 출판 | 해드림출판사 | 2016.9.13.

세상을 새롭게 보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책은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자기 혁신 에세이집이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죽는다. 우리도 각자 자신이 겪고 느끼는 생각의 크기만큼만 살다 죽는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경험하다 보면 짧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된다. 한 가지 사물을 볼 때 앞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것, 밑에서 보는 것 모두 모습이 다르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의 폭과 크기를 키우는 데 일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 추천 평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목차의 한 장씩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과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어 하루가 기계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특히 신규 직원 및 이제 막 사회에 첫 발걸음을 댄 인턴 직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책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일 주임(심사실 내과심사1부)



### 얼룩말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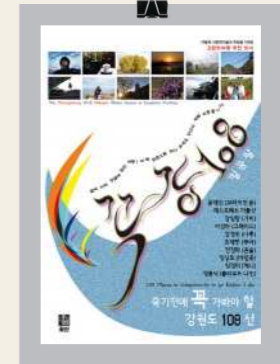
저자 | 권혁수 업무지원시니어(고객홍보실 홍보부) | 출판 | 천년의 시작 | 2016.5.25.

저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부 업무지원시니어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재직 중 <얼룩말 자전거>를 출간했다. 시집 <얼룩말 자전거>에는 일상의 삶과 밀착된 서정적 시 70편이 수록돼 있다. 작가가 직접 세속의 골목을 걸어 다니며 생활의 낮은 가옥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세세하게 마음을 써 창작한 시편들이다.

#### 추천 평

이 시집이 심평원 직원들의 마음과 정서에 훈훈한 공감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홍보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적인 발상과 칼럼 교정 작업 등 다양한 홍보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호 부장(고객홍보실 홍보부)



### 꼭강 108

저자 | 강경우 대리(서울지원 고객센터) 외 9인 | 출판 | 꽃신 | 2019.5.17.

꼭강 108(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강원도 108선)은 사진작가 10인이 강원도의 아름다운 108곳을 각자의 시선으로 촬영해 담아낸 책이다. 그리고 촬영 당시 작가들이 느낀 감정과 여행 정보를 함께 수록했다. 10인의 사진작가가 추천하는 강원도 여행 108곳. 이제 테마를 찾아 여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추천 평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 가족, 연인, 자녀 등 촬영해야 할 대상이 있는 분, 여행 가기 좋아하는 분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도 10인의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강경우 대리(서울지원 고객센터)

# 환자나 의료진의 신뢰를 구축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체험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수상작 중 일반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김요안 님의 수기를 소개합니다.



2019.5.22.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머리를 조금 다치셨다. 의사는 동맥류 출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나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주일 전 다른 대형병원에서 뇌 MRI를 찍었고 이상병변이 없다고 진단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사는 동맥류 출혈 검사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토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나는 동의했고 의사는 아버지의 허벅지 안쪽 혈관으로 카테터를 삽입해 뇌동맥류를 확인했다.

동맥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의사가 과잉 진료를 했다고 생각했다. 뼈뚫한 시선으로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는데 빠르게 호전됐다. 그런데 의료진은 입원 기간을 보름 이상 예상했다. 주치의에게 퇴원을 조금 앞당길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 그러자 그날 바로 퇴원 결정이 났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입원하고 8일 만이었다. 나는 의료진이 과잉 진료를 했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입실 기간을 연장하려 했다는 심증을 갖게 됐다. 얼마 후 심증은 의심이 넘어 확신이 됐다.

해를 넘겨 아버지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다녀온 날이었다. 아버지는 신경외과와 신경과 두 개 분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신경외과에선 별다른 문진도 없이 약간 처방했고, 신경과에선 이런저런 검사를 했다. 신경과 교수님은 대뇌가 위축이 든 경증치매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주는데 그 약들이 신경외과에서 처방한 것들과 겹치는지 이런 말을 했다.

“신경외과 선생님이 처방한 약 빼고, 다른 약 처방해줄게요.”

그 순간 나는 어째서 신경외과와 신경과 두 군데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다. 두 분과의 진료예약시간이 두 시간 차이 나서 병원에서 네 시간 이상을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가뜰이나 불만을 품던 차였다. 나는 넉넉히 다음부터는 신경과 하나만으로 진료를 일원화하면 안 되겠

냐고 물었다. 그러자 교수님도 아무래도 그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진료 일원화 역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제안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신경외과와 신경과 두 군데를 다녀야 했다는 불합리한 의료체계에 괜히 분이 났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시 TV 광고로 널리 홍보되던 진료비확인서비스가 생각났다. 나는 병원 원무과에서 발행해준 ‘입원 진료비 내역서’에 기재된 처방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자가점검’을 통해 일일이 대조했다. 그랬더니 엄연히 급여임에도 비급여로 청구된 것들이 수십 개나 발견됐다. 그간 의료진의 과잉진료에 대한 심증이 의심이 되고 또 의심이 굳어져 확신이 됐는데, 이젠 확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까지 나온 것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이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진료비 환율이 예측됐다. 한 예로 ‘입원 진료비 내역’의 EdiCode는 비급여로 3만 5,220원이 청구됐으나 ‘진료비확인자가점검’을 해보면 급여로 나오는 식이었다. 그렇게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액수가 100만 원을 상회했다. 나는 서식을 갖춰 정식으로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요청했다.

한 달 반 만에 결과를 통보받았다. 의료진이 과잉 진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뢰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행정체계에서 착오 된 ‘일만 원’을 환급받았을 뿐이었다. 부끄러워졌다. 나는 병원을 얼마만큼 신뢰하지 못했던가. 오죽하면 응급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병을 확실하게 탐색하려는 의사의 노력을 과잉 진료로 폄하했다. 나는 의료진이 수익에만 집중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진료행위를 불순하다고 의심했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내게 깨달음을 줬다. 돈을 환급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중요했다. 의사는 가용한 치료를 환자에게 실행할 책무가 있다. 나는 의료행위에 대해 일자무식임에도 그들의 처치

를 무시했던 것이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구축한다. 여기서 구축은 신뢰를 몰아 쫓아낸다는 뜻의 구축(驅逐)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 올린다는 뜻의 구축(構築)이다. 나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조건 덮어놓고 진료행위를 의심하는 환자들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니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그동안 의료진들의 불공정한 의료행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알기로 진료비확인서비스를 통해 불법이 적발된 사례는 많다. 그런 의미에서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하나의 탁월한 감시체계로 작동한다. 하지만 나는 의료진이 아니다. 내가 겪은 진료비확인서비스는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여 신뢰를 구축해줬다는 사실뿐이다.

만병의 근원은 마음이다. 그런데 치유의 근원도 마음이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다. 모든 환자는 만병의 근원 ‘의심’을 지우기 위해, 또 치유의 근원 ‘신뢰’를 얻기 위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와 의료진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환자의 병까지 회복을 꾀하는 의료행위 외적인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신뢰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노력이 요구된다. 나는 환자 가족으로서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요청하는 노력을 기했다. 덕분에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수동적인 신뢰가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에서 오는 신뢰로 바뀌었다. 만약 당신이 환자로서 의사와 신뢰 관계를 맺고 싶다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

32쪽 'HIRA 토크보기' 코너에서 '진료비확인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L i v e r C a n c e r

#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질병, 간암

2018년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간암은 전체 암 발생의 6.9%로 6위를 차지했다. 한편,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서 간암은 폐암에 이어 사망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했다. 발생률은 다른 암에 비해 높지 않지만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특별한 증상 없이 찾아와 더욱 위험한 간암. HIRA 보건 의료빅 데이터를 통해 간암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알아보자.

\*주의사항

본 통계는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서, 실제 환자 수치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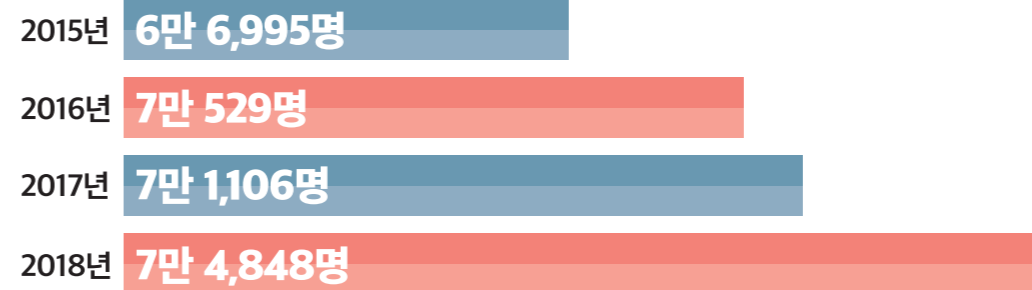


**간암(Liver Cancer)**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암(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는데, 간에 발생하면 간암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로는 다른 기관의 암이 전이돼 발생하는 전이성 간암까지 포함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발성(간 자체에서 시작된 암) 간암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간세포암종을 말한다.

HIRA 보건 의료빅 데이터 국민관심질병통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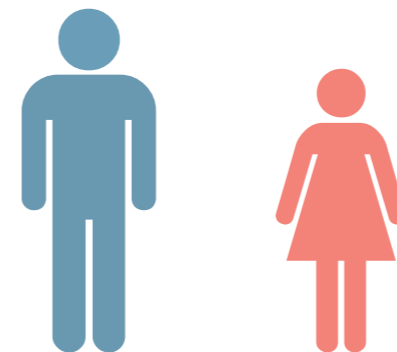
## 연도별 간암 환자수? 꾸준히 증가 추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암을 앓고 있을까?

**7만 4,848명**

남성 5만 5,549명      여성 1만 9,299명



환자 1인당  
연평균 요양급여비용은?

**739만 9,420원**

남성 767만 2,295원      여성 661만 3,99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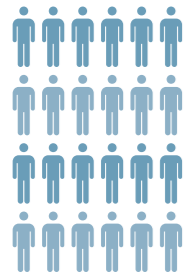
L i v e r C a n c e r

### 환자 1인당 연평균 보험자부담금은? 679만 7,347원

간암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보험자부담금은 679만 7,347원이며, 남성은 705만 6,405원, 여성은 605만 1,689원이다.



남성 705만 6,405원      여성 605만 1,689원



남성 60대  
1만 9,971명



여성 60대  
6,025명

###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여성 60대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여성 모두 60대이다.  
남성은 60대(1만 9,971명) > 50대(1만 5,441명) > 70대(1만 3,729명) 순이며, 여성은 60대(6,025명) > 70대(5,964명) > 50대(3,692명) 순이다.

###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 60대, 여성 70대

연령구간별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은 60대, 여성은 70대이다.

남성은 60대(40만 1,546일) > 50대(32만 481일) > 70대(28만 9,925일) 순이며, 여성은 70대(13만 3,482일) > 60대(11만 5,685일) > 80대 이상(8만 4,646일) 순이다.



남성 60대  
40만 1,54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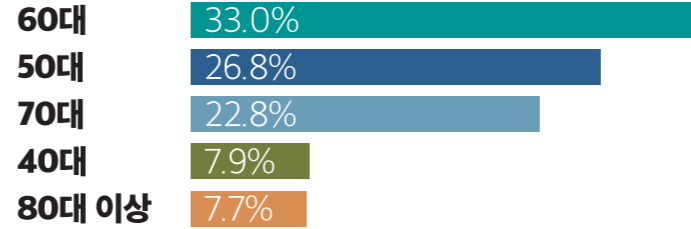


여성 70대  
13만 3,48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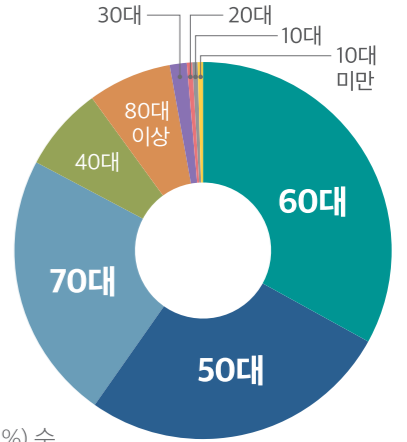
L i v e r C a n c e r

###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높을까? 60대

[ 연령대별 요양급여비용총액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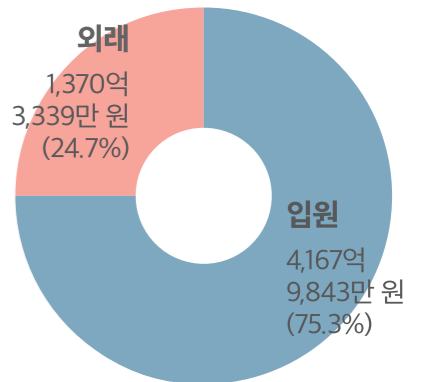


※ 이외 30대(1.5%) > 20대(0.1%), 10대(0.1%), 10대 미만(0.1%) 순



###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총액 비율은? 입원 75.3%, 외래 24.7%

입원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4,167억 9,843만 원  
외래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1,370억 3,339만 원이다.



###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요양기관 종류는? 상급종합병원



보건기관  
673일



의원급  
4만 3,237일



병원급  
30만 2,737일



종합병원  
38만 6,785일



상급종합병원  
92만 7,945일

# 간암,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 L i v e r C a n c e r

흔히들 간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일명 '침묵의 살인자'라고 한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서서히 나타나고,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병이 한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다른 암종과 달리 만성 B형과 C형간염, 간경변증 등의 위험인자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런 요인을 지닌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간암 검진을 통해 조기에 간암을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간암이란?

간암이란 간에 생기는 원발성 암을 통칭한다.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을 간세포암종, 담관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을 담관세포암종이라 하며,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원발성 간암이 있다. 간세포암종이 원발성 간암의 대부분(약 80%)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암'은 간세포암종을 의미한다. 다른 장기의 암이 간으로 전이된 경우는 전이암이라고 하며, 이는 간암이라고 하지 않는다.

### 만성 간 질환이 주요 원인

간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대부분 기존에 질병이 있던 간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간암은 대부분 위험 요인, 즉 만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이나 간경변증 등을 지닌 환자들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의 주요 발생 원인은 만성 B형간염이고, 그 다음으로 C형간염, 이어서 알코올성 간 질환 및 비알코올성 간 질환 순이다. 즉, 간암 환자 대부분 만성 간 질환이 원인이 돼 간암이 발생한다.

간암 검진이  
필요한 사람

남자 30세, 여자 40세 이상으로  
아래의 위험인자를 지닌 경우,  
간암이 생길 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을 권한다.

-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
-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
- 여러 원인(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 비알코올성 간 질환 등)에 의한 간경변증



### 침묵의 살인자, 간암

간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일명 '침묵의 살인자'라고 알려져 있다. 간암 환자의 상당수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증상이 있더라도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므로 간암의 증상과 기존 질환의 증상이 혼동돼 간암이 생겨도 잘 모를 때가 많다.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피로, 쇠약감, 체중감소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병이 한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간암으로 진단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행된 간암 상태에서 발견된다.

### 간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간암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암이 생길 위험이 높은 집단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B형간염의 예방을 위해 B형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은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특히 신생아의 접종은 필수다. C형간염은 아직 예방접종이 없으므로 평소에 주의해야 한다. 간염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려면 다른 사람과 칫솔, 면도기, 손톱깎이 등을 같이 사용하지 말고, 지나친 음주를 삼가고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의 균형이 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간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일단 B형간염이나 C형간염 또는 간경변증 등 만성 간 질환 환자로 진단되면 항바이러스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간의 만성 염증과 섬유화가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함으로써 간암 발생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간암 검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간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간암이 생길 위험이 높은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시행해 간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암 검진은 매년 두 번, 6개월 간격으로 반복해서 받는 것이 좋다. 이 간격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 간암 조기 진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간 초음파검사를 적절히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검사로서 CT나 MRI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경우 5년 생존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어 적극적인 감시 검사를 통해 조기에 간암을 진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간암의 치료 방법은?

간암을 진단받으면 우선 영상검사와 간 기능 평가를 시행해 암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수술적 치료로는 간절제술이나 간이식이 있으며, 비수술적 치료로는 국소치료술(고주파 열치료술, 냉동요법, 마이크로웨이브 등), 경동맥색전술(경동맥화학색전술, 경동맥방사선색전술 등), 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 등이 있다. 간암이 이미 진행됐다면 전신항암치료(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나 임상시험을 고려한다.

### 간암은 재발이 많다고 하던데?

간암은 B형간염, C형간염 또는 간경변증 등의 만성 간 질환을 앓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간암에 대하여 잘 치료해 완치해도 남아 있는 간이 여전히 만성 간 질환을 앓는다면 병든 간에서 다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간암에 대해 치료한 이후에도 간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성 간 질환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 간암 예방 및 건강한 간을 위한 생활습관

#### 1) 불필요한 약 복용을 삼간다.

각종 건강 보조식품과 생약제도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 간에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과 생약제는 대부분 객관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특히 만성 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2) 지나친 음주를 하지 않는다.

간에 유익한 술은 없으므로 음주를 절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과다한 음주 후 해장술이나 불필요한 약제의 추가 복용은 간 손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3) 영양이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한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대부분은 간에서 대사되므로 평소 절제된 식습관이 중요하다. 식사를 거르지 말고 세 끼를 챙겨 먹으면서 한 끼 분량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과식을 피하고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식했다면 평소보다 운동량을 늘려서 에너지를 더 소비하도록 한다. 또한 중등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요리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간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 2선

간암 환자가 알고 싶어 하는 다양한 궁금증 중 하나가 간암 치료에 좋은 식품이다. 하지만 특정 음식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평소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되 절제된 식습관이 필요하다. 영양 밸런스를 맞춘 요리 레시피를 추천한다.

### 건강한 맛 구운 가지 샐러드

**재료** \*2인분 기준  
가지 2개, 두부 1/4모, 비트 1/4개, 블랙 올리브 5개, 다진 마늘 1작은술, 올리브오일 5큰술, 소금, 후추, 바질 약간

**요리법**  
① 가지는 세로 방향으로 한 번 자르고 칼집을 넣어 소금, 후추로 밑간한다.  
② 두부는 끓는 물에 데치고 으갠다.  
③ 블랙 올리브는 곱게 다진다.  
④ 비트는 삶아서 강판에 간다.  
⑤ 두부, 비트, 블랙 올리브에 각각 다진 마늘과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로 간한다.  
⑥ 밑간한 가지는 달군 팬에 올려 올리브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앞뒤로 부드럽게 구워 꺼낸다.  
⑦ 가지에 두부, 비트, 블랙 올리브를 올리고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린 뒤 바질을 엮는다.

###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 레드 카레

**재료** \*2인분 기준  
소고기 50g, 양파 1개, 완두콩 4큰술, 강낭콩 4큰술, 옥수수 4큰술, 당근 1/3개, 비트 1/4개, 카레 가루 2인분, 카놀라유 2큰술, 소금, 후추 약간, 월계수 잎 1장, 물 2컵

**요리법**  
① 소고기는 잘게 다지고 양파는 큼직하게 채 썬다.  
② 비트와 당근은 강낭콩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③ 달군 팬에 카놀라유를 조금 두르고 소고기를 볶다가 양파를 더하고, 양파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④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당근과 비트, 옥수수를 볶다가 완두콩과 강낭콩, 월계수 잎을 넣고 물을 붓는다.  
⑤ 재료가 다 익으면 카레 가루를 넣고 한소끔 끓인 후 소금, 후추로 간한다.

### 전문의가 알려주는 간 건강 식습관

- 첫째, 섬유소가 많은 음식(채소, 과일, 곡물 등)을 골고루 먹는다.
  - 둘째,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인다.
  - 셋째, 달고 지방 성분이 많은 간식은 피하고, 비만하지 않게 체중을 조절한다.
- ※ 무리한 체중 조절로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 영양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안내



## 병원평가란?

진찰·시술·투약·검사 등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졌는지를 요양기관별·진료과 목별 또는 상병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평가 대상

2001년 약제 평가를 시작으로 평가 영역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2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 분 야        | 항 목                                               |
|------------|---------------------------------------------------|
| 급성 질환(5)   |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폐렴         |
| 만성 질환(6)   |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정신건강입원영역            |
| 약제(6)      |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약제급여(4개 항목),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
| 암 질환(5)    |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간암                              |
| 정액 수가(3)   | 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7개 질병군 포괄수가                        |
| 중환자실(2)    |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
| 진료량(1)     | 수술별 진료량(4개 수술)                                    |
| 환자중심 의료(1) | 환자경험                                              |
| 일반 질(2)    | 병원표준화 사망비, 위험도표준화 재입원비                            |
| 감염 질환(1)   | 결핵                                                |
| 치과(1)      | 치과 근관치료                                           |
| 환자 안전(2)   | 마취, 중소병원                                          |

## 평가 절차

|                                      |                                                          |           |
|--------------------------------------|----------------------------------------------------------|-----------|
| ① 평가 후보 항목 선정 및 예비 평가: 신규 평가 지표 개발   | ▶ 국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평가 항목 제안<br>▶ 평가기획단 검토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 <b>붙임</b> |
| ② 연간 평가 계획 수립: 평가 계획 공개              |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 승인                                 |           |
| ③ 평가 세부 계획 공개: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 | ▶ 평가 2개월 전 공개                                            |           |
| ④ 평가 수행: 자료 조사 및 분석, 신뢰도 점검 등        | ▶ 필요 시 자료 청구(조사표 등)                                      |           |
| ⑤ 평가 결과 분석 및 적용                      |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보고                                |           |
| ⑥ 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 가감지급 적용 시 보건복지부 승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           |
| ⑦ 이의신청                               |                                                          |           |

## 정보 공개

국민의 병원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질환과 수술에 대한 의료기관별 평가 결과(평가 등급 등)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병원평가정보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 비급여 진료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비급여 진료비확인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국민이 적정 비용을 부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의 현명한 의료 이용, 심사평가원이 돕습니다.

## HIRA 톨아보기

\*'톨아보다'는 순우리말로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톨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 1 비급여 진료비확인서비스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하고 더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2 처리 절차

진료비 확인 요청(진료비 영수증 첨부) > 해당 의료기관 자료 요청 > 자료 확인 심사 > 확인 결과 안내(의료기관, 확인 요청자) > 환불금 지급



### 3 진료비 확인 자가 점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전에 대상 여부, 민원 사례,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 비중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http://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자가 점검



### 4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http://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 스마트폰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접수
  - 상급종합병원 본원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
  -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10개 지원



# 함께하는 가치, 건강한 나눔

## 제2회 심평원+원주 마음이음축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창립 19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7일 심평원 본원 앞마당에서 '제2회 심평원+원주 마음이음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원주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분 좋은 북적임으로 가득했던 마음이음축제를 기록한다.



###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심평원

본격적인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온 6월의 끝자락,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심평원+원주 마음이음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을 위한 축제, 지역과의 상생, 심평원 대국민 서비스 홍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획됐다. 특히 심평원 창립 19주년, 본원의 원주 이전 4년 차를 맞이해 주민과의 소통 창구 확대 및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원주 이전 4년 차를 맞아 주민과의 거리를 보다 가깝게 하고자 마음이음축제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기업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음이음축제는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심평원 마당에는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 부스가, 바로 이어진 원주시민 마당에는 3개의 푸드트럭과 25개의 플리마켓이, 마지막으로 각종 공연과 기부 행사가 진행되는 메인무대는 문화공연 마당에 마련됐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핵심인 '대국민 홍보부스'는 ▲내가 직접

선택하는 병원(고객서비스부, 평가운영부) ▲내가 직접 확인하는 진료비(진료비확인부, 비급여정보관리부) ▲안전한 의약품 사용(DUR관리부, 환자안전평가부) ▲환자와 지역 사회가 행복한 의료(일차의료수가부, 환자중심평가부) ▲청렴하고 따뜻한 대한민국(감사부, 혈액관리본부) ▲포용국가 대한민국(상생협력팀, 원주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해당 홍보부스를 통해 건강정보 앱 서비스, 진료비확인제도,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보건의료빅데이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DUR·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게임 미션을 연상케 하는 축제 기획이었다. 운영부스에 마련된 스탬프 확인서를 들고 심평원 대국민 서비스 홍보부스를 찾아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 스탬프를 찍으면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됐다. 축제라는 큰 틀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심평원 대국민 서비스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구성이 돋보이는 기획이었다.



# 야구 동호회 HIRA Angels, ‘함께 경기한 모두가 승자!’

제8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배 한마음 야구대회



## 승패를 떠나 함께 즐기며 맘 흘린 모두가 승자!

오전에 진행된 예선 1, 2경기가 끝나고 예선 3경기가 시작되자 작렬하는 햇살만큼이나 대회의 열기도 뜨거워졌다. 승패의 가름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의 특성을 제외하더라도 풍부한 상품이 눈앞에 딱하니 진열돼 있으니 없던 승부욕도 생길 지경이었다. 조별 예선 1차전 일산병원과의 경기에서 8:9로 아쉽게 역전패를 당한 HIRA Angels는 2차전인 보건복지부와와의 경기를 앞두고 각오를 다졌다.

이순신 장군이 주창한 '생즉필사 사즉필생'의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한 HIRA Angels의 출발은 매우 좋았다. 오늘따라 제구와 구속이 프로를 연상케 할 정도로 훌륭한 김충현 기획예산부 차장의 2이닝 1실점 호투 위에 포수·투수·타자의 각기 다른 3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HIRA Angels의 팔방미인 나진호 자원관리부 주임의 무실점 구원투와 역전 타점이 더해졌다. 경기 내내 상대 팀 더그아웃에 상주하며 열심히 스파이 역할에 충실했던 김 부장을 대신해 감독 겸 벤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한 이승덕 평가관리부장의 조연도 경기력 향상에 한몫한 모양새였다. 보건복지부와와의 조별예선 2차전은 보건복지부를 5:2로 이기며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김종봉 부장은 “축제 개최자로서 우리가 우승까지 차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상대 팀 더그아웃에 침투함으로써 우리 팀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주는 한편 경기 전략에 혼란을 줬던 저의 스파이 역할이 주효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HIRA Angels가 속한 A조 전체가 1승 1패로 팽팽한 예선이었지만, 아쉽게도 득실차로 조 2위가 되어 결승전이 아닌 3·4위전을 치르게 됐다.

점심식사와 가족 참여 행사, 경품 추첨 등이 끝난 후 이어진 서울의료원과의 3·4위전에서 HIRA Angels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며 4위로 대회를 마감했지만(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성모병원, 서울의료원 순으로 1, 2, 3위 차지) 승패를 떠나 모두 함께 즐기며 맘을 흘린 한마음 야구대회가 한여름 진한 추억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구 동호회 감독이기도 한 김 부장은 “한마음 야구대회가 소위 ‘우리만의 축제’로 그치지 않도록 행사 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이 대회를 통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과 사는 구분돼야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맞닿는 업무에 공감대 형성이 전제된다면 보다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평소 업무 영역 전반에 걸쳐 교집합이 형성된 기관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하기에 좋은 기회인 셈이다.

김 부장은 “무엇보다 평소 원주에서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참석은 대회 범주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회의 질과 양을 두루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한마음 야구대회 역시 어엿한 대회인 만큼 기관별로 참가비를 받는다.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금액이다. 이날도 그렇게 모인 참가비가 전액 장애인 부모연대 원주시지부에 전달됐다. 평소 다양한 창구를 통해 원주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심평원과 7개 유관기관의 기부 참여를 통해 한마음 야구대회의 또 다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사회인 야구의 확대와 함께 우리 일상 가까이 자리 잡은 ‘국민 스포츠’ 야구. 심평원은 야구를 통해 생활 체육 활성화에 부응하고, 인근 기관 및 보건복지 가족 간 화합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15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심평원 야구동호회 ‘HIRA Angels’를 포함해 총 8개 유관기관의 야구팀이 함께한 한마음 야구대회의 열기를 기록한다.

## 한여름 축제의 장, 참가팀 늘어나고 위상 올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7월 첫째 주말, 여주시 양섬야구장에서 ‘제8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배 한마음 야구대회’가 개최됐다. 이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서울성모병원, 준우승을 차지한 심평원 야구동호회 ‘HIRA Angels’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서울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림제약주식회사 등 총 8개 기관의 야구팀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추가로 대회에 참가했다. 두 기관의 참가는 이번 한마음 야구대회를 기획한 김종봉 인사부장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김 부장이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파견 당시 맺은 인연으로, 오래전부터 보건복지부의 한마음 야구대회 참여를 적극 권장해왔던 것이다. 또한 심평원의 원주 이전으로 이웃사촌이 된 도로교통공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사회 화합이라는 의의까지 더해져 대회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 선도적 역할 다할 것

2019년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구성원들의 노력을 조명한다.



※ 완화요양수강부 허은정 차장, 윤다혜 과장이 취재에 동행했습니다.



## 병원·의료진의 사명감과 의지의 쾌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이하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평가에서 2019년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해당 평가는 ▲ 법적 기준 준수 여부 ▲국고지원금 집행 및 급여 청구 적정성 ▲서비스 제공 실적 ▲사업계획 및 실적 ▲임종의 질 및 치료·돌봄에 대한 만족도 ▲사업수행평가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센터는 전문 인력 구성과 시설 및 장비 구축, 법적 기준 준수, 가족 관리 우수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93점으로 2019년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김종광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실장은 “오랫동안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 병원의 노력이 긍정적인 결실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라며 “심평원의 적절한 컨설팅과 우리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호스피스센터의 새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센터의 이번 2019년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선정은 심평원의 컨설팅이 큰 힘이 됐다. 심평원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소통을 통해 취약 부분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설명회 및 간담회, 워크숍을



▲ 손진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실시해 우수기관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호스피스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센터는 심평원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별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3가지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으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예컨대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가정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별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참고로 가정형 호스피스는 기존의 호스피스병동 입원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형은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말기환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취재에 동행한 허은정 심평원 완화요양수가부 차장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만큼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라며 ‘사명감을 갖고 센터 발전에 힘을 쏟아준 의료진과 꾸준한 지원과 투자를 결정해준 병원 측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말로 이번 취재의 공을 병원과 의료진에게 돌렸다.

지난 2007년 산재형 호스피스를 시작으로 매년 성장과 혁신을 거듭해온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센터는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권역호스피스센터 지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병동 중 최고 전망을 자랑하는 9층으로 위치를 이동한 것은 물론 침대가 드나들 수 있는 야외정원을 조성하고 완화, 보호자, 사별 가족, 영적 대상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명실공히 국내를 대표하는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특히 14명의 전문의와 9명의 전담간호사, 2명의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의료진의 탄탄한 구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원주와 서울에서 출발한 취재팀을 반갑게 맞아준 류정숙 수간호사는 “우리 병원 호스피스센터의 최대 강점으로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의료진, 풍부한 경력의 자원봉사자를 꼽을 수 있다”라며 병원 인프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덧붙여 “모든 인력이 각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업 병행, 워크숍, 학회 참석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센터는 다학제팀 구성원들의 교육 참여를 독려·지원하는 한편 업무 특성상 팀원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주별 팀 회의, 직원소진프로그램, 힐링데이, 개별 면담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심평원과의 소통으로 실효적 제도 개선에 기여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호스피스 운영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까닭이다. 하지만 최근 ‘좋은 삶’만큼 ‘좋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호스피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 지역 대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확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아직 완벽하게 제도적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현실이기에 여전히 호스피스가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백진호 호스피스센터장은 “호스피스 확대 운영은 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이에 우리 병원은 예전부터 심평원, 중앙호스피스와 꾸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센터의 확대를 도모해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사업 전담인력들은 관련 사업이나 업무, 수가에 관해서도 심평원과 다채로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수가 및 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평원의 호스피스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임

상 현장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서로에게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 팀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관련 논의와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심평원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심평원 직원들은 ‘출장’이 많은 편이다. 임상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경청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의 현장 방문은 의료진에게 있어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현재 병원에서 겪는 현실을 고스란히 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또한 현장의 살아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까닭에 직접 방문을 통한 소통방식을 선호한다.

한편, 김아솔 권역 호스피스센터장은 “심평원 직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가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현실화하려는 행보는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에 큰 힘이 된다”라며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지역 내 중소병원들의 호스피스 사업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임상실습동 건설을 중심으로 병원 확장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완공 후에는 지역 최대 규모인 지상 15층, 1,300여 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호스피스센터 역시 병원 확장에 발맞



춰 양과 질 양쪽 모두에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손진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은 “병원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호스피스 돌봄사업에도 소홀함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최신 치료와 함께 편안한 임종까지 책임지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센터의 또 다른 도전에 대한 결과가 사뭇 기대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입원형 호스피스 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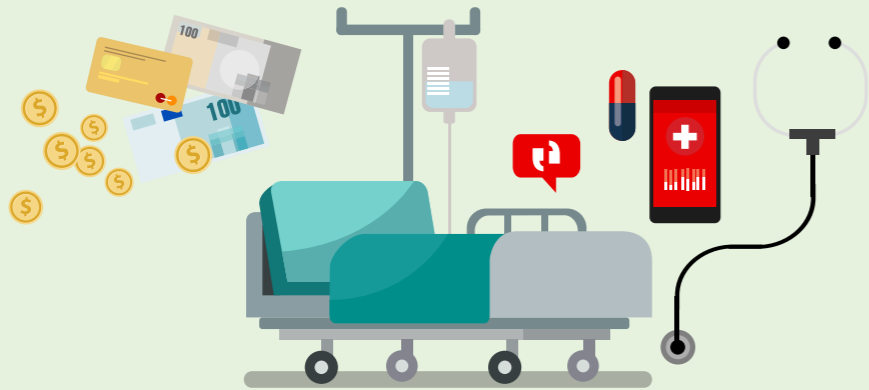
- 입원형 호스피스: 병원 내 호스피스병동에서 호스피스 전담인력과 조직을 두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19.7월 기준 85개 기관

###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 가정형 호스피스: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상담, 임종교육 등을 제공, '19.7월 기준 39개 기관  
- 자문형 호스피스: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이 돌봄 상담 등을 제공, '19.7월 기준 27개 기관

#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입원료 등 주요 변경사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상급병상 급여화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이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까지 확대되어 입원료 환자 본인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상급병상 급여화 및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

2019년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동네병원(의원·치과병원 제외)을 방문하는 환자  
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2018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본인부담금 역전현  
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의 환자 본인부담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1일 입원 시 2인실은 평균 약 7만  
원, 3인실 평균 약 4만 7,000원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019년 7월부터는 2인실 입원 시 2만 8,000원, 3인실  
은 1만 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본인부담금 변화

(단위: 원)

| 구분            | 간호등급 7등급   |        | 간호등급 6등급 |        |
|---------------|------------|--------|----------|--------|
|               | 2인실        | 3인실    | 2인실      | 3인실    |
|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 70,090     | 46,880 | 77,850   | 52,920 |
| 보험<br>적용 이후   | 입원료(A)     | 68,790 | 58,970   | 72,410 |
|               | 본인부담률(B)   | 40%    | 30%      | 40%    |
|               | 환자 부담(A×B) | 27,520 | 17,690   | 28,960 |

\*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2·3인실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2인실은 140%, 3인실은 120% 수준이며 입원료 중 환자 본인부담  
률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 적용

\*\*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

##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 확대

병원·한방병원 2·3인실의 급여화로 일반병상의 적용 대상 범위가 4인실 이상에서 2인실 이상으로 확대되어, 총 병상 중 의  
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의 비율도 현행 50%(1/2 이상)에서 60%(3/5 이상)로 변경된다. 다만 병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 1인실 기본입원료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중단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상 이용 시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입원료(병원 6등급 기준 3만 2,000원)를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나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그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종합병원·병원·한  
방병원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건강보험 지원이 중단된다.

따라서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1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동일하게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하게 된다.

다만, 병원·한방병원에 한해 만 6세 미만 소아와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산모의 경우는 1년을 유예하여 2020년 7월부터 시행  
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은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지 않  
으며 또한 기존대로 상급병상(1~3인실)에 기본입원료가 지원된다.

##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인상

현재 불필요한 장기입원 사례를 줄이고자 기존 4인실 이상 일반병상에서 16일 이상, 31일 이상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5~10%p 인상하고 있어, 2·3인실에도 장기입원의 본인부담률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마무리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급여화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금 역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퇴직을 앞둔 두 선배와의 마지막 추억 쌓기 여행

## 해솔길과 낙조가 어우러진 대부도에서의 하루

시화호를 끼고 있는 대부도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낙조 명소로 유명하다. 지역 대표 관광지인 대부해솔길 꼭짓점 낙조 전망대에 '석양을 가슴에 담다'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설치한 것만 봐도 낙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선·후배 네 명이 의기투합해 다녀온 대부도에서의 추억을 기록한다.



게소였다. 시화호를 포함한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달전망대에서 커피 한 잔에 담소를 곁들이며 본격적인 여행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 부장은 “대부도에 이런 곳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평일 여행은 생각조차 못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벤트를 마련해 준 배 실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360도 조망권을 확보한 달전망대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시화방조제와 송도국제신도시, 국내 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 시원한 수평선을 품은 시화호 등 그림 같은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바로 옆 바다와 맞닿아 있는 시화나래휴게소와 조력문화관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구비돼 있다.

### 시화호 풍경 품은 달전망대 '엄지 척'

33년을 근무한 함기철 부장과 30년을 근무한 김윤희 부장은 심평원의 '살아있는 역사'와 다름없다. 심평원의 출범과 성장, 변화와 혁신의 우여곡절을 모두 함께한 두 사람은 무려 한 세대가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우직한 행보를 이어왔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지만, 오랜 세월 삶의 큰 축을 차지했을 심평원과의 이별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터.

함 부장은 “심평원 덕분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었다”라며 “예전에는 하루빨리 은퇴하고 낮까지 늘어지게 자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밀려온다”라고 말했다.

배경숙 실장이 바쁜 와중에도 여행을 결심한 것은 퇴직을 앞둔 두 선배와의 마지막 추억 쌓기를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배 실장, 함 부장, 김 부장, 그리고 두 부장과 각별하게 지낸 최혜영 부장이 대부도 당일치기 여행에 나섰다. 수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부도는 서해와 인접해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

배 실장은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두 선배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아쉽게 각자의 사정으로 낙조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네 명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부도 여행의 시작은 최근 관광명소로 떠오른 시화나래휴

### 낙조와 함께 마지막 추억 갈무리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아름다운 시화호를 배경 삼아 '인생샷'을 남긴 네 사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트레킹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대부해솔길이었다. 총 7개 코스 74km로 이뤄진 대부해솔길은 주말이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명소다. 특히 가장 유명한 곳은 '개미허리 아치교'와 '낙조 전망대'가 있는 제1코스다. 대부해솔길의 하이라이트인 낙조 전망대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구봉도 주차장에서부터 잘 다듬어진 길을 따라 20분 정도를 걸거나, 해발 100m 남짓의 작은 구릉을 관통하는 트레킹코스를 따라 1시간 정도 산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낙조 전망대 방문은 '반드시'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이어야 한다. 낙조가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싶다면 꼭 해 질 무렵 방문할





것을 권한다.

최 부장은 “낙조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름답다”라며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맞춰 방문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가벼운 트래킹 후 시화호를 내달려 도착한 곳은 대부도의 유리섬이었다. 유리섬은 국내 최고의 유리 조형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각종 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특히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독특한 콘셉트의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어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배 실장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어릴 때 상상하던 동화속 궁전을 떠오르게 한다”라며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리섬을 끝으로 조금 이른 시각에 이번 나들이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하루를 되새기며 낙조가 잘 보이는 식당에서 네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른 시각에 끝낸 것이다. 짧은 여행을 마무리하며 심평원과 30여 년 아름다운 동행의 끝을 앞둔 함기철, 김윤희 부장은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오랫동안 삶의 큰 부분이었던 심평원과 동료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웃음이 한 사람의 몫을 다하며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심평원 동료 모두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Mini Interview

#### “두 선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한 세대의 기준으로 삼는 30년이란 세월 동안 심평원에서 최선을 다한 두 선배님의 영광스러운 은퇴를 축하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겠지만, 두 분 모두 대부도의 낙조처럼 주변 분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출 것으로 믿습니다.

배경숙 실장(인재경영실)

#### “지겨워질 때까지 여행 다니고파”

올해로 꼭 33년 동안 심평원과 함께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그동안 그리 좋은 가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왔던 대부도를 시작으로 지겨워질 때까지 가족여행을 다니며 가족에게 떨어진 점수를 회복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함기철 부장(수원지원)

#### “내 원래 이름으로 살아갈 제2의 인생 기대돼”

직책으로만 불리던 지난 30년을 뒤로하고 본래 제 이름인 김윤희로서 살아가야 할 미래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은퇴의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김윤희 부장(수원지원)

####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선배들의 은퇴 아쉬워”

제가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두 분은 제게 선배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버팀목이 돼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또다시 함께 여행할 날을 기대합니다.

최혜영 부장(수원지원)



최혜영 부장

김윤희 부장

배경숙 실장

함기철 부장

## 대부도의 맛과 멋 그리고 향기



### 시화나래휴게소 달전망대

시화호와 시화호 조력발전의 모습, 멀리는 인천 송도 신도시와 가까이에는 큰가리섬을 조망할 수 있는 360도 조망권의 전망대.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내부에는 카페가 있어 잠시 휴식하기에도 좋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927 / 032-885-7530



### 대부해솔길

해안선을 따라 대부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이다. 총 7개 코스, 74km로 이뤄져 있으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제1코스이다. 낙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 일반 관광객은 물론 사진작가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대부해솔길1코스: 대부도관광안내소 ↔ 24시 횡집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31 / 1899-1720 (대부도관광안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안길 23 / 032-886-2410 (24시 횡집)



### 방아머리해수욕장

해수욕과 갯벌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부도 대표 해수욕장이다. 물살이 잔잔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부해솔길1코스의 끝자락과 맞닿아있다. 인근에 대부도공영주차장이 있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 유리섬

4만 3,000㎡(1만 3,000평)의 드넓은 공간에 조성된 유리섬은 ‘한국의 무라노’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야외조각공원, 유리섬미술관, 유리공예시연장, 유리공예체험장 등 각종 전시, 체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 032-885-6262

## 2인자들의 극단적인 심리 살리에리 증후군



신자유주의 경제는 세계를 무한 경쟁의 시대로 몰아넣었다. 냉엄한 경쟁 원리는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사회가 구성원에게 경쟁을 요구하니, 개인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노력한다. 일부는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주변인으로 인해 우울증 또는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 열등감, 좌절에 사로잡히는 살리에리 증후군

사람 대부분 누군가 자신보다 뛰어날 때 상대는 운이 좋았고 자신은 운이 나빴다고 말한다. 또는 경쟁이 공정하지 못했다거나 상대가 비열했다고 하며 진짜 실력은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식으로 합리화한다. 살리에리 증후군을 앓는다면 좀 다르다. 살리에리 증후군은 이탈리아 음악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보며 느낀 열등감을 빚대 만들어진 용어로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를 쫓아갈 수 없을 때 느끼는 마음이다. 살리에리 증후군이 성립하려면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실력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 실력 차이를 인정하면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잡으려는 소모적인 노력을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과 비교를 중단하고 자신을 다른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다. 문제는 충분히 잘하면서도 자신은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 1등인 학생과 2등인 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다. 다른 학급이라면 전교 2등 하는 학생도 반에서 1등을 차지할 텐데 항상 2등이다. 그렇지만 성적표를 보면 다른 반에서는 학급 1등을 할 수 있음을 알기에 살리에리 증후군에 빠질 확률이 낮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상황 대부분 학교 시험 성적 발표와 다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항상 자신보다 잘하면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자신이 해당 직종에서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다른 조직의 일인자들과 비교하기란 더욱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이 충분히 우수함에도 눈앞의 일인자와 비교하며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살리에리 증후군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가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실제는 우리 인지와 다를 수 있다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에쿠우스>로 유명한 극작가 피터 쉐퍼의 동명 연극을 영화화한 <아마데우스>에서 비롯됐다. 영화 속에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며 질투, 시기, 우울, 절망에 빠져 고통받았다.

하지만 실제 살리에리의 대중적 인기는 모차르트보다 결코 못 하지 않았다. 시간을 뛰어넘는 음악성을 평가 기준으로 하면 모차르트가 우월할지 몰라도 당대 인기를 기준으로 하면 살리에리가 더욱 나왔다. 또한 살리에리는 궁정 음악가로서 안정된 삶을 살았다. 반면 음악가로서 독립하고 싶었던 모차르트는 항상 돈에 쪼들렸다. 우리는 영화 속 살리에리를 보고 모차르트를 부러워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사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이처럼 실제는 우리 판단과 다를 수 있다. 관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당신에게는 주위 누군가가 모차르트처럼 대단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나 당신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거나, 오히려 당신이 더 가능성 있게 보일 수 있다.

한편,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계속 잘 할 수 없다. 조직의 방향이 바뀌거나 결정권자의 선호가 변하거나 시장 상

황이 변하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인정받던 사람도 꺾일 수 있다. 따라서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말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

한편,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는 만큼 상대가 우월감을 느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인간은 단편적인 경향이 있다. 자신이 잘하는 부분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못 하는 부분만 신경 쓴다. 당신은 상대의 무언가를 부러워하지만, 상대도 당신의 다른 무언가를 부러워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기는 사람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낄 것이다. 어쩌면 그 역시 불안해할지 모른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A로 칭하자. 그리고 A가 부러워하는 인물을 B라고 하자. 당신은 A는 부럽지만, B는 부럽지 않다. 그런데 B는 당신을 매우 부러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변과 삶을 넓게 보자.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동시에 돌고 돌아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흔히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1등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1984년에 개최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 대부분 잊는다. 타인도 당신에 대해 잊는다. 오래전 당신이 잘했는지 다른 사람이 잘했는지 타인은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만 자신에 대해 기억할 뿐이다. 따라서 길게 보자.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같다. 하지만 지금 조금 잘하는 거나 못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현재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는 사람이 해고됐을 때 당신은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을지 모른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동료로 인해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빠졌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 사실 반대다. 우울증 탓에 무기력해지면 희망을 거부하고 자신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열등감 때문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닌,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 HIRA News



## 김승택 원장, 머니투데이 방송 인터뷰

김승택 원장이 머니투데이 방송 프로그램 '더 리더'에 출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회적 책임과 현재 추진 중인 업무 혁신에 대해 대담 시간을 가졌다. 김승택 원장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 노력, 취임 2년간의 업무 성과와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 및 신사업 건립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심사평가원 - 제약바이오협회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신약개발 등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제약 관련 교육에 관해 협력키로 했다. 김승택 원장은 이날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활성화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국내 제약 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29일,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상호 교류를 통한 도서 사업 업무협력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 및 도서 나눔, 기증 행사 등 상생협력 실현 ▲독서 관련 사업 및 도서 서비스 제공 관련 상호 협력 ▲지역사회 독서 관련 봉사활동 상호 연계 ▲기타 양 기관 업무의 상호 협조 등이다.



##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4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HIRA 혁신계획'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8년도에 출범한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참여 기구로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16명(국민위원 12인, 내부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 회의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6월 6일과 7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HCQO워킹그룹) 전문가회의에서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의장에 선출돼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32개국,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병원 성과평가와 환자 중심성평가 등 평가 방식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2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민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요소 발굴 등을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일반 부문 최우수상(김요안), 우수상(이주영), 장려상(이현지), 실무 부문 최우수상(박세진), 우수상(김종석), 장려상(장창숙)



LETTER  
독자의 편지

최근 미래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쓸모 있는 걱정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에 적힌 대로 마음의 일정 부분을 고쳐먹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 대구시 달서구 이유민 님 -

나이가 들다 보니 오복 중 하나인 치아 문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이제 치과 분야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병원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특히 치료비용 및 환자 본인부담금과 구순구개열의 치아교정 급여전환을 도표로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원 동해시 장우익 님 -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란?'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알고 있었고 그동안 몇 번 사용해 보려고 시도도 해보았지만, 새 프로그램에 적응한다는 게 익숙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볼까 합니다. 늘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 안양시 김명희 님 -

CONGRATULATION  
당첨을 축하합니다

2019년도 5·6월호 독자엽서 당첨자

김건완(경기 시흥시), 김국경(강원 태백시), 김명희(경기 안양시), 김병건(광주시 광산구), 김승미(전북 익산시), 김으뜸(충북 청주시), 김철규(서울시 성동구), 김화영(부산시 부산진구), 노경표(경남 창원시), 박성근(광주시 서구), 이영현(경북 청도군), 이유민(대구시 달서구), 이인재(강원 원주시), 이희우(서울시 성북구), 장우익(강원 동해시), 전경숙(광주시 북구), 정명진(서울시 강남구), 조옥임(광주시 북구), 최홍식(부산시 해운대구), 황석영(부산시 금정구)

좋은 의견과 함께 퀴즈 정답을 맞힌 독자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QUEST  
구독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구독은 '웹진(hirasabo.or.kr)' > 구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은 웹진(hirasabo.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확인 요청자료 「요양기관 업무포털」 제출 안내

## 비급여 진료내역 웹제출 2가지 방법

· 제출경로: 정산관리 > 진료비 확인요청 > 확인내역조회 > 대상수진자 클릭 > 자료등록/수정/조회

### ① 비급여 진료내역의 '엑셀파일 등록'

화면 상단 비급여 진료내역의 「엑셀파일 등록」은 반드시 우리원의 정형화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진료내역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② 첨부파일의 '파일 추가'

화면 하단 첨부파일의 「파일 추가」는 요양기관에서 자유롭게 작성한 모든 파일 형식의 비급여 진료내역 및 진료기록의 첨부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내역을 [임시저장]한 후,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비급여 진료내역 화면]으로 이동하며,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심평원으로 최종자료가 접수됩니다.

**Tip.**  
파일 제출 형식이 자유로운 ②번 방법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확인내역조회] 화면에서 대상 수진자(민원종류: 요양급여, 처리상태: 종결)를 선택하여 [진료비확인요청 상세내역조회] 화면으로 이동 후 [이의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 동네병원 병원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입원료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 2인실 |

평균  
70,000원

약  
28,000원  
간호7등급기준



| 3인실 |

평균  
47,000원

약  
18,000원  
간호7등급기준

입원료의 본인부담비율은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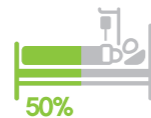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현황

|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 종합병원    |     | 40% | 30% | 20% | 20%    |
| 병원·한방병원 |     | 40% | 30% | 20% | 20%    |
| 치과병원·의원 |     | 비급여 |     | 20% |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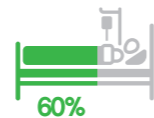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 비율



2020년  
1월부터 적용



## 의약계 안내사항

요양기관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알짜 정보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실시(2019년도, 1차) 58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2018년도, 7차) 60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2017년도, 8차) 62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정액 수가 현실화 65
- 요양기관 업무포털 진료비 확인 업무 처리 방법 66
- 산부인과 전문병원 제도 68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 70

#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실시 (2019년도, 1차)

## 평가 배경 및 목적

- 의료급여 정신과(입원) 영역은 2009년부터 적정성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영역은 제외되어 정신건강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환자를 포함한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서비스 질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입원영역의 의료 질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2019년 8월~2020년 1월(6개월)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 대상 기간 동안의 개·폐업 기관 제외
- **대상 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건강보험 환자



## 평가 기준(평가 지표)

| 구분             | 평가 지표     |                                      |
|----------------|-----------|--------------------------------------|
| 평가 지표<br>(8)   | 과정<br>(5) | (지표 1)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
|                |           | (지표 2)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
|                |           | (지표 3)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
|                |           | (지표 4)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
|                |           | (지표 5)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
|                | 결과<br>(3) | (지표 6) 재원환자 입원일수_중앙값                 |
|                |           | (지표 7) 퇴원환자 입원일수_중앙값                 |
|                |           | (지표 8)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
| 모니터링<br>지표 (2) | 결과<br>(2) | (지표 9)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
|                |           | (지표 10) 퇴원 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

## 평가 자료 및 평가 방법

- 평가 자료는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및 웹 기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이 직접 제출한 조사표를 활용합니다.
- 평가 방법은 평가 지표별로 표준화 점수 및 가중치를 반영하여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합니다.

##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는 국민들이 의료 이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 알림방 > 평가 알림방(구 요양포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2018년도, 7차)

## 평가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및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요양병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평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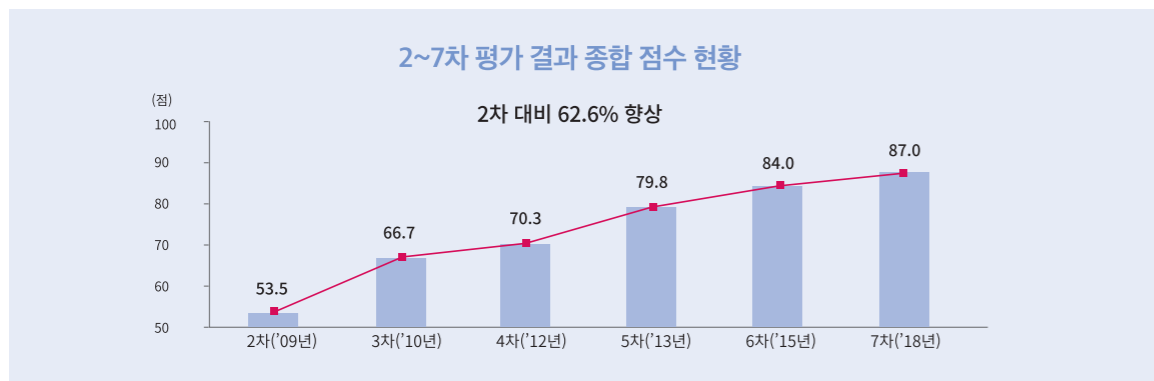
- 제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3월까지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평가 기준(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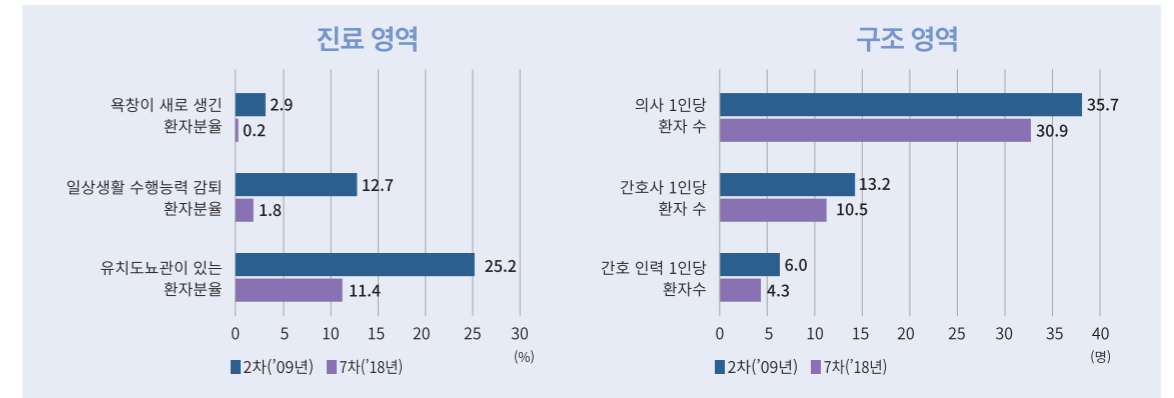
-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영역 9개 지표와 진료영역 13개 지표 총 22개 지표가 평가 대상입니다.

##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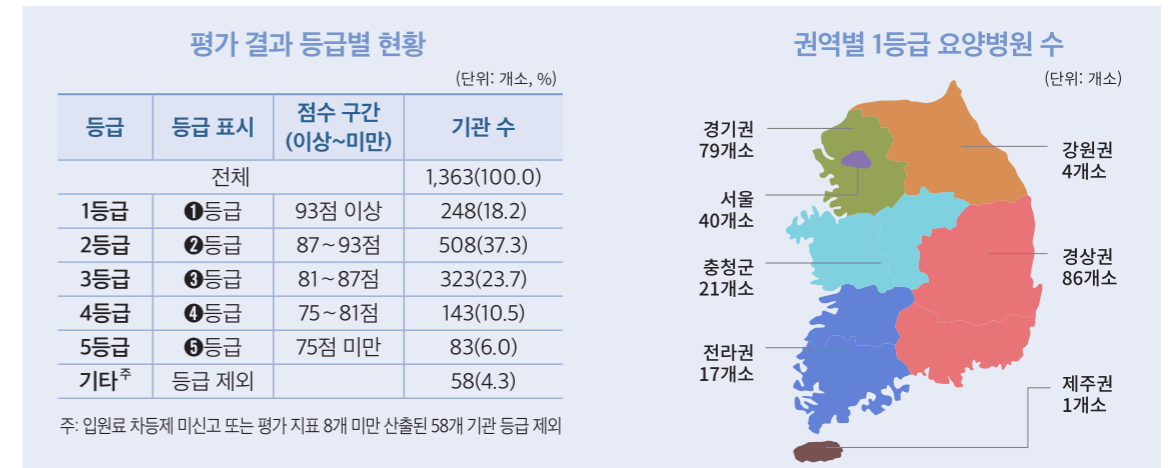
- 7차 평가 결과 종합 점수는 87.0점으로 초기(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 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표별로 살펴볼 때 진료 영역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등이 초기 평가 대비 높은 개선을 보였으며, 구조 영역에서는 의사·간호사·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 평가 결과는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하며,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은 248곳입니다. 기관별 상세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요양병원



## 향후 계획

-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2019년 1~3월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2주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요양병원이 자율적으로 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요양병원 평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2017년도, 8차)



## 평가 배경 및 목적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할 때 환자의 피부나 점막에 존재하는 세균 및 오염물질, 의료진에 의한 오염, 기타 수술 환경 요인 등으로 수술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용법 및 용량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 예방의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고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지침을 근거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8차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 평가 대상

|             |                                                                                                                            |
|-------------|----------------------------------------------------------------------------------------------------------------------------|
| 대상 기간       | 2017년 10~12월 입원 진료분(녹내장수술은 외래 포함)                                                                                          |
| 대상 기관       | 수술 별 10건 이상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 대상 수술 (19종) |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백내장수술, 폐절제술 |

## 평가 내용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중요한 예방적 항생제의 ‘최초 투여 시기’, 적합한 ‘항생제 선택’, 적절한 ‘투여 기간’의 3개 영역, 6개 지표가 평가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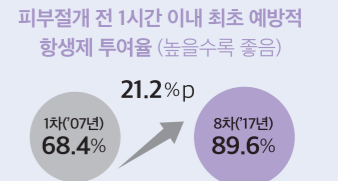
| 3개 영역          | 6개 평가 지표                     | 지표 해석   |
|----------------|------------------------------|---------|
| 최초 투여 시기       |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 높을수록 좋음 |
| 항생제 선택         |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 낮을수록 좋음 |
|                | 3세대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  |         |
|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 |                              |         |
| 투여 기간          |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         |
|                |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            |         |

## 평가 결과

### 지표별 결과

#### · 최초 투여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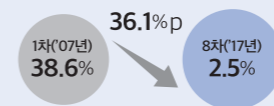
- 수술 부위의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수술 시 체내 항생제 농도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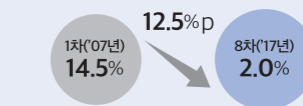
#### · 항생제 선택

- 약물의 독성, 내성균 발현 등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 아미노글리코사이드,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병용 투여는 예방적 항생제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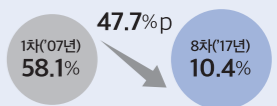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낮을수록 좋음)



3세대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  
(낮을수록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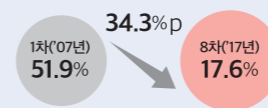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  
(낮을수록 좋음)



#### · 투여 기간

- 예방적 항생제의 첫 투여 시기가 적절하면 수술 후에는 1일(심장 2일) 이내로 투여하도록 권고합니다.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낮을수록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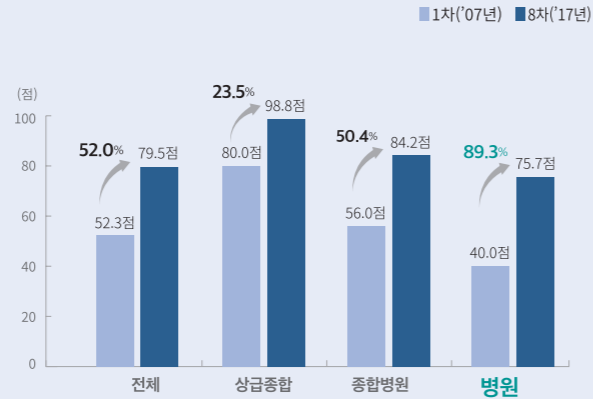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  
(낮을수록 좋음)



### 종합 점수

- 각 지표의 점수를 종합화하여 의료기관별 종합 점수를 산출합니다.
- 8차 기관별 평균 종합 점수는 79.5점으로 1차 평가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병원이 89.3% 향상되어 가장 큰 향상률을 보였습니다.



### 평가 결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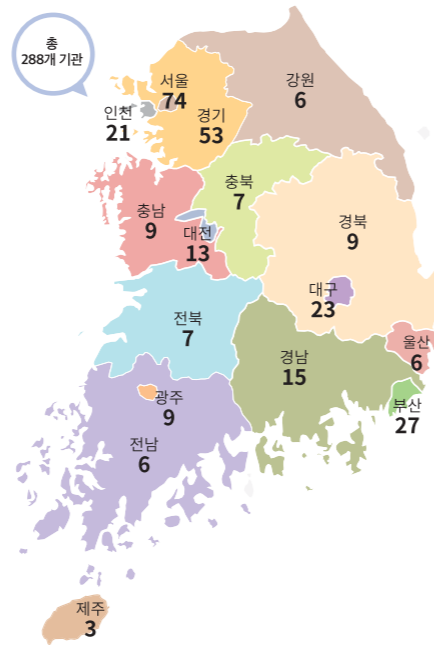
-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였으며, 전체 기관의 34.4%인 288개소가 1등급을 차지하였습니다.
- ※ 자세한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 평가 정보 > 약제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 ▶ 건강정보 앱 > 국민서비스 > 병원 평가 정보 > 약제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 향후 계획

- 8차 평가 결과 하위 의료기관 중심으로 권역별 의료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9차 평가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해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정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1등급 기관 수 현황 (단위: 개소)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정액 수가 현실화

## 정신과 정액 입원 수가 개선

### 추진 배경 및 개선 방향

- 정액수가 인상에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차별 우려
-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별도 산정할 수 있는 항목 검토 및 정신과 정액 개선(6.1~)

### 개정 사항

-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청구하도록 변경
  - 약제비 및 마약류 관리료 별도 보상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표 개정
  -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1일당 수가 변경 및 G4·G5 등급의 병원·의원 수가 통합

## 식대 수가 개선

### 추진 배경

- '18년 5월 건강보험 평균수가 수준으로 식대를 인상하였으나, 일부에서 식사 질 차별 문제 제기

### 개선 방향

- 일반식 및 치료식을 제외한 식대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100% 적용(6.1~)
- 일반식 및 치료식은 단계별로 수가 현실화

### 개정 사항

- 제12조(식대)

(1식당, 단위: 원)

| 구분 | 일반식<br>(일반유동식,<br>연식 포함) | 치료식<br>(당뇨식,<br>신장질환식 등) | 멸균식              | 분유              |                 | 산모식             | 경관영양<br>유동식<br>(조제식, 완제품) |
|----|--------------------------|--------------------------|------------------|-----------------|-----------------|-----------------|---------------------------|
|    |                          |                          |                  | 일반분유            | 특수분유            |                 |                           |
| 현행 | 3,740원<br>(1식당)          | 4,420원<br>(1식당)          | 14,870원<br>(1식당) | 2,140원<br>(1일당) | 6,040원<br>(1일당) | 5,510원<br>(1식당) | 4,630원<br>(1식당)           |
| 개선 | 3,900원<br>(1식당)          | 5,060원<br>(1식당)          | 15,150원<br>(1식당) | 2,180원<br>(1일당) | 6,150원<br>(1일당) | 5,610원<br>(1식당) | 4,720원<br>(1식당)           |

\*관련근거: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61호, 2019.6.1.)

# 요양기관 업무포털 진료비 확인 업무 처리 방법

## 개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확인 요청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업무: 자료 제출(비급여 내역 등) 및 환불금 지급 방법 선택 등

## 진료비 확인 요청 자료 「요양기관 업무포털」 제출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이 접수된 민원인의 진료 관련 요청 자료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자료: 비급여 진료 내역 및 진료 기록 등 - 파일 형태: JPG, PDF, ZIP, Excel 등

## 진료비 확인 요청 자료 제출 방법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산 관리]-[진료비 확인 요청]을 클릭하면 [확인 내역 조회]로 이동
- [확인 내역 조회] 화면에서 대상 수진자를 더블 클릭하면 [진료비 확인 요청 상세 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



- 해당 수진자의 [작성된 대상 목록 내역]에서 [자료 등록/수정/조회]를 클릭하면 [비급여 진료 내역] 화면으로 이동



④ 화면 상단 비급여 진료 내역의 「엑셀 파일 등록」은 진료 내역의 업로드 가능 ※ 단, 반드시 우리원의 정형화된 파일 형식으로 제출



④-1 화면 하단 첨부파일의 「파일 추가」는 요양기관에서 자유롭게 작성한 모든 파일 형식의 비급여 진료 내역 및 진료 기록의 첨부가 가능



⑤ 비급여 내역을 [임시 저장]한 후,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비급여 진료 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최종 접수

## 진료비 확인 환불금 지급 방법 선택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처리 결과 '환불' 건에 대하여 지급 방법(공제처리 또는 자체 환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환불금 지급 방법 선택 방법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산 관리]-[진료비 확인 요청]을 클릭하면 [확인 내역 조회]로 이동합니다.
  - [확인 내역 조회] 화면에서 대상 수진자를 선택하여 [진료비 확인 요청 상세 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해당 수진자의 [환불금 지급 요청] 건에서 지급 방법[공제 처리, 자체 환불]을 선택한 후, [저장]을 누르면 최종 선택이 완료됩니다.
- ※ 단, 자체 환불 선택 시, [지급 예정 일자]와 [실지급 일자]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부인과 전문병원 제도

## 산부인과 전문병원이란?

- 산부인과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 중에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의료 인력', '필수 진료 과목', '병상 수', '의료 질', '의료 서비스 수준' 총 7가지 지정 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

| 환자 구성 비율                                                                             | 진료량                 | 필수 진료 과목        | 전문의 수           | 최소 병상 수 | 의료 질   | 의료 서비스 수준 |
|--------------------------------------------------------------------------------------|---------------------|-----------------|-----------------|---------|--------|-----------|
| MDC 'N'<br>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br>MDC 'O'<br>임신, 출산, 산욕<br>(정상 신생아는 제외)<br>45% 또는 66% 이상 | 연 환자 수<br>1,108명 이상 | 산부인과,<br>소아청소년과 | 8명 이상<br>(산부인과) | 60병상    | 70점 이상 | 인증        |

## 산부인과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 국민에게 보다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병원의 전문 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 지표 7개, 진료 과정 등을 평가하는 과정 지표 5개, 결과 지표 6개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부인과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표

| 구분    | 평가 지표                           |
|-------|---------------------------------|
| 구조(7) | 산부인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
|       | 임상 경력 10년 이상 전문의 비율             |
|       | 간호 등급                           |
|       | 경력 간호사 비율                       |
|       | 산모 및 신생아 응급 진료(처치) 시스템          |
|       | 직원 교육 및 환자 안전(감염) 관리 프로토콜 운영 여부 |
|       | 분만실 장비 항목 수                     |

| 구분    | 평가 지표                      |
|-------|----------------------------|
| 과정(5) | C.P 유무                     |
|       | C.P 시행률                    |
|       | 수술 예방적 항생제(종합 등급)          |
|       | 약제 급여 평가                   |
|       | 정기적인 집담회 시행 여부             |
| 결과(6) | 자궁천공 재수술률                  |
|       | 재입원율                       |
|       | 합병증 발생률                    |
|       |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
|       | 입원 일수 장기도 지표(건당 입원 일수, LI) |
|       | 진료비 고가도 지표(건당 진료비, CI)     |

## 산부인과 전문병원 현황

| 요양기관명             | 지역      | 대표 전화번호      |
|-------------------|---------|--------------|
| 미즈메디병원            | 서울특별시   | 02-2007-1000 |
|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 서울특별시   | 02-3468-3000 |
|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 서울특별시   | 02-2000-7114 |
| 인정병원              | 서울특별시   | 02-309-0909  |
| 봄빛병원              | 경기도 안양시 | 031-380-7300 |
| 그레이스병원            | 경기도 고양시 | 031-901-4000 |
| 허유재병원             | 경기도 고양시 | 031-817-1100 |
| 시온여성병원            | 경기도 수원시 | 031-201-0700 |
| 서울여성병원            | 경기도 부천시 | 032-230-3000 |
| 분당제일여성병원          | 경기도 성남시 | 031-725-8500 |
| 의료법인아인의료재단 서울여성병원 | 인천광역시   | 032-247-2000 |
| 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 대구광역시   | 053-766-7070 |

## 전문병원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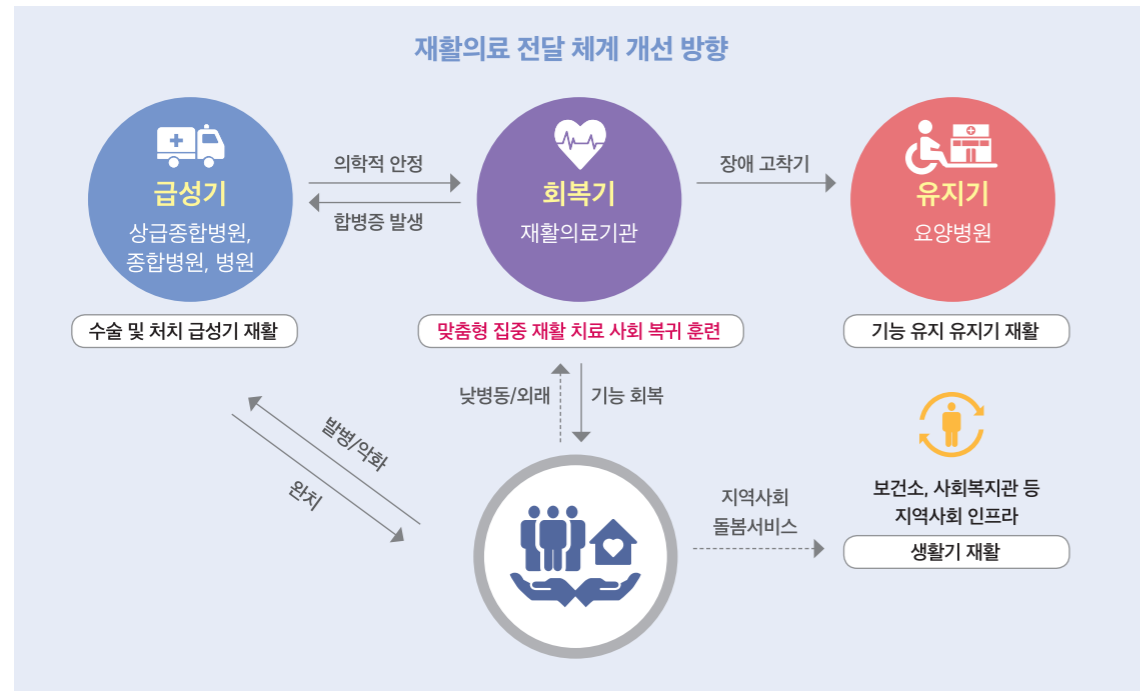
- 전문병원은 별도의 마크로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으니, 마크로 확인이 가능하며, 전문병원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전문병원<br>마크 |  | 전문병원명단<br>확인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 > 병원·약국 > 병원·약국 찾기 ><br>세부 조건별 찾기 > 병원 규모별 전문병원 |
|------------|--|----------------|----------------------------------------------------------|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 개념

-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를 받은 재활환자가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역사회 통합 돌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사업 운영

\*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2단계 시범 수가 적용 예정

- 지정 대상: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를 둔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회복기 재활 환자 치료를 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 평가 기준 및 방법: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별표2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

## 지정 평가 절차

|                              |                                              |
|------------------------------|----------------------------------------------|
| 지정 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지정 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 제출 자료 서면 점검 (실시간 점검 및 보완 요청) | 보완 요청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자료 제출                      |
| 입원환자 현황 추출 및 재활환자 현황 제출      | 환자 현황 자료 요청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자료 제출               |
| 의료기관 신뢰도 점검 및 실무 검토          | 환자 구성은 진료 기록 확인(서면) 그 외 현장 점검                |
|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 평가 결과 및 운영 계획서 토대로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공고                | '19년 하반기                                     |

※ 지정 평가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

###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의 원칙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

- 입원 대상: 시범사업 대상 환자(4개군) 외에 '비사용증후군' 추가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대상 환자군

| 대상 질환 |                             | 입원 대상 기준      |                |
|-------|-----------------------------|---------------|----------------|
|       |                             | 입원 시기         | 종료일            |
| 중추신경계 |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발병/수술 후 90일 내 |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       |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                |
| 근골격계  | 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30일 내 |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       | 라 하지 부위 절단                  | 발병/수술 후 60일 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 그 외   | 마 비사용 증후군*                  | 발병/수술 후 60일 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주) 비사용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양측의 어깨 외전근, 팔꿈치 굴곡근, 손목 신전근, 엉덩이 굴곡근, 무릎 신전근, 발목 배굴근)

2) 일상생활 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 수가

- **통합계획관리료:** 다학제적 팀 회의를 통한 환자 관리
-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주기적인 기능 평가
-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입원료** 체계제
- **신설:** 치료 시간 단위당 수가
  - 재활치료 항목별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 맞춤형 통합 치료 계획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최대 4시간 한도) 집중재활 치료를 실시
  - 실제 치료 내역은 단위 시간당 행위별로 구분하여 환자에게 설명 후 시행하고 실제 시행 내역 제출

#### 재활치료료 시범 수가(안)

| 수가명(가칭)      | 상대가치점수  | 1단위(15분)당 금액* | 비고                     |
|--------------|---------|---------------|------------------------|
| 가. 재활치료료 I   | 35.10점  | 3,156원        | 전문재활치료료 외 물리치료         |
| 나. 재활치료료 II  | 78.64점  | 7,068원        | 전문재활치료료 1:1 외          |
| 다. 재활치료료 III | 185.85점 | 16,704원       | 전문재활치료료 및 일부 비급여** 1:1 |

\* 병원급 종별가산 적용 \*\* 안전성 확보, 환자요구도 1, 치료에 필요(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등)

- **신설:** 지역사회 연계수가
  - 집중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잔존하는 장애 관리나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

#### 지역사회 연계수가 신설(안)

| 수가명(가칭)              | 상대가치점수  | 금액       | 비고                                                                                                 |
|----------------------|---------|----------|----------------------------------------------------------------------------------------------------|
| 통합계획관리료 II (퇴원 계획)   | 911.05점 | 68,240원  | - 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퇴원 후 관리를 위한 개인별 맞춤 계획을 세우고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 및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퇴원 전 1회)                    |
| 지역사회연계 I (기관 내 활동)   | 246.42점 | 22,152원* | - 환자 요구도에 맞는 서비스기관을 별도 현장 방문 없이 유선 등으로 연계 시 산정<br>- 의뢰서 또는 지원 서류 등 작성 및 발송, 환자(보호자)에게 설명 교육한 경우 산정 |
| 지역사회연계 II (현장 방문 활동) | 526.46점 | 47,316원* | -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지역사회 기관(예. 복지관 등) 등을 방문한 경우 산정<br>- 1회 산정(필요 시 1회에 한해 추가)                           |
|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 812.84점 | 73,056원* | - 사회복지사 및 작업치료사 등이 함께 주거 환경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정<br>- 1회에 한하여 산정하며, 2회차부터는 기존 MM143 재활사회사업-다. 가정방문 수가산정    |

\* 종별가산적용, 교통비 108.30점(8,110원) 별도

- **세부사항**
  - 요양기관업무포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알림방」

## 2019년 더 든든해지는 건강보험 혜택

- MRI 건강보험 적용** (복부, 흉부, 안면)
-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하복부, 비뇨기, 전립선, 자궁)
- 상급병실 2·3인실 건강보험 확대**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확대**
-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 건강보험 확대**
-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이제, 병원비 걱정은 **씩~** 자우세요!

